

가나의 환율급등¹⁾ 원인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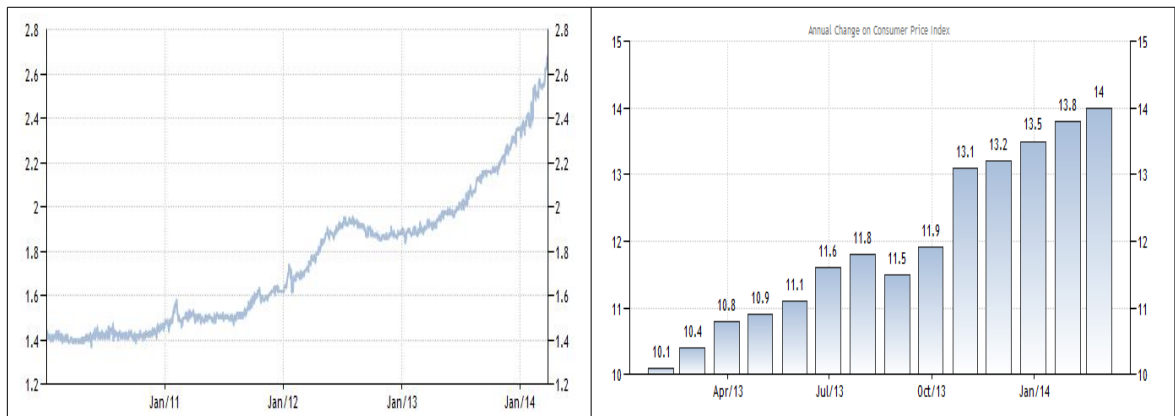
작성자: 장종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작성일: 2014년 3월 28일

■ 2011년 주빌리 유전의 생산효과로 14%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는 가나(Ghana)는 최근 들어 현지 화폐인 세디화(Cedi)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는 문제를 겪고 있음.

- 가나 세디화 환율은 2013년 1월 미 달러당 1.90 수준에서 2014년 2월 2.60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물가상승률도 2013년 2월 10% 수준에서 2014년 3월 14% 수준까지 급등하였음.

그림 1. 가나의 환율(좌, 2010~2014)과 월별 물가상승률(우, 2013~2014)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Ghana Statistical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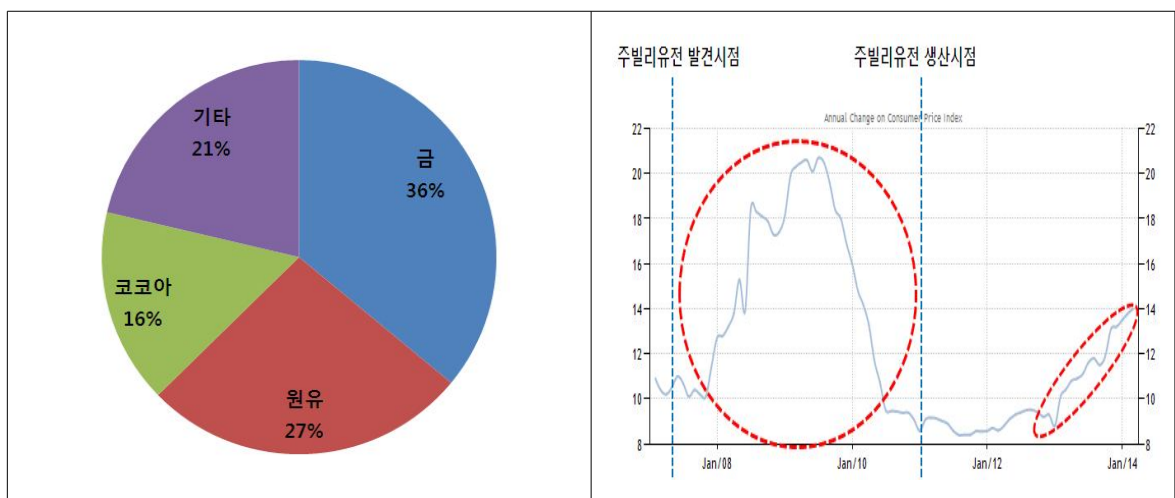
○ 가나 중앙은행은 세디화 평가절하와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2월 5일 긴급 통화 정책 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를 소집하고 기준금리(재할인율)를 16%에서 18%로 인상하였음.

1)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Default) 가능성증가는 일반적인 외환위기(currency crisis) 상황과 유사하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환율급등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실제 가나는 이미 2002년에서 2004년 HIPC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약 21억불, 2006년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을 통해 2억불을 탕감 받은바 있음. (<http://www.imf.org>, 2014년 3월 26일 접속). 또한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도 투자부적격 등급(B)으로 이미 대외거래가 제한적인 상황이라 동 상황에 대해 채무불이행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충격을 가정한 외환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또한 2014년 2월 13일 환전소 규제, 외환 계좌에 대한 규제, 수출 대금의 세디화 전환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 가나는 2007년 주빌리 유전의 발견으로 크게 주목받은 바 있으나, 모노컬처형 경제(monoculture economy) 구조로 인해 자원개발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임. 오히려 석유자원 개발에 따른 거품 발생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문제와 물가문제가 심화되어 왔음.

그림 2. 가나의 2013년 주요 수출품목(좌)과 원유 생산 전후 물가상승률 추이(우)



자료: IMF(IMF Country Report No. 11/128), Trading Economics

- 주빌리 유전 개발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가나의 고물가 상황은 임금상승을 자극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음. 또한 자원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는 상품 수입을 급증시켜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야기하였음.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나의 상품수입량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폭도 2008년 18억 달러에서 2013년 47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부록 참조).

* 주빌리 유전의 석유생산규모도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산 10만 배럴 수준으로 아프리카 주요 석유 생산국인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에 비해 작은 규모라 할 수 있음 (나이지리아의 1/22 수준).

■ 가나 경제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가나의 환율급등 문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가나는 서아프리카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이나, GDP 규모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 1/27에 불과함 (약 400억 달러).
- 다만, 새로운 천연자원 개발을 진행 중인 저개발국 혹은 개도국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음.
- 특히 심해 가스전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모잠비크 등 여타 아프리카 국가 중 상당 국가는 가나와 유사한 모노컬처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자원개발 및 인프라개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잠재위험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

〈자료: IMF, EIU, Trading economics data 등〉